

쌀 수입개방 반대 결의안

의안 번호	215
----------	-----

발의년월일 : 1993. 12. 8.

발 의 자 : 한영환의원외 3인

□ 제안이유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과 관련하여 최근, 정부의 입장이 크게 후퇴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 농업의 파국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쌀시장 개방을 절대 억제코자 함.

□ 주 문

- 쌀수입개방 반대 결의문 (별 첨)

쌀 수입개방 반대 결의문

지금 농촌은 올 여름의 극심한 냉해로 인한 흉작으로 그 어느때보다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이 크게 후퇴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합의를 거쳐 결정된 15개 비교역 관심 품목을 보호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수정하여, 쌀 등 4개 품목을 제외한 11개 품목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욱이 최근 일본이 쌀시장 개방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자 우리나라도 쌀의 조건부 개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의 경제력·농업구조·쌀의 국민경제적 위치·국민 정서 등 경제적·사회적 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일본과 똑같이 우리의 쌀농사를 비교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반만년 역사를 쌀과 함께 지녀온 우리 민족에게 쌀은 우리의 생명선이요, 문화요, 얼이다. 쌀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의 역사와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쌀은 절대 다수 농가의 생존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쌀시장 개방에 따른 600만 농민과 농업의 붕괴가 우려된다.

우리 농업의 파국을 초래할 쌀 시장개방은 절대로 수용되어서는 안된다. 이에 속초시의회의원 일동은 한 톨의 쌀도 수입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의 쌀은 식량안보,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 소득의 유지를 위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한다.

1. 농산물 수출국들은 자국내 소수의 쌀 재배농민을 위해 우리나라 600만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쌀 시장개방 압력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 속초시의회의원 일동은 우리나라 농민의 생존권과 농업의 사활이 걸려 있는 쌀 시장개방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1993. 12. .

속 초 시 의 회 의 원 일 동